讀書는 國民生活의 길잡이

— 讀書週間을 맞으며 —

會 長 李 瑄 根

天高馬肥의 가을철은 結實과 收穫의 계절이기도하나 晝耕夜讀의 思索과 讀書의 계절이기도 하다. 금년에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전국적으로 讀書週間이 本協會주관으로 실시된다. 한더위가 지나고 사람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가을철에 책을 많이 읽고 그만큼 마음의 良識을 쌓아 生活을 윤택하게 하자는 것이 讀書週間이 설정된 목적이다. 讀書는 글자 그대로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讀書週間의 의미가 그 週間에만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오히려 讀書週間에는 책을 읽지않고 어떻게하면 모든 사람이 책을 읽게 할 수 있으며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의논해 보는 週間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평상때에 책을 읽고 서로 느낀바를 토론하여 앞으로 어떻게하면 讀書人口를 늘릴수 있으며 讀書方法은 어떤 것이 좋은가를 알아서 평상때의 독서에 대비하는 週間이라는 것이다.

이 讀書週間에는 全國 各圖書館이 널리 개방되며 전시회·강연회·좌담회 등 다채로운 讀書週間行事가 전개되고 있으며 「책읽는 국민에 자라나는 국력」「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 등의 標語도 이곳 저곳에 붙어있어 近代化途上의 動中靜인 讀書週間이 뜻있게 실시되고 있음은 매우 기쁜일이다. 어느 學者가 말한 「讀書는 나의 생명이다. 내나라의 富를 나에게 다 준다하여도 나는 나의 독서의 취미와 바꿀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말이 기억에서 되살아 난다.

讀書는 國民生活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가장 원만한 人格은 높은 敎養과 풍부한 경험에서 울어나오는 것이다. 이 교양과 경험은 讀書生活에서 얻어야할 것이며 독서생활에서 얻은 건전한 國民的 知性이 國家의 發展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은 人間의 記錄이요, 文化의 기록, 民族의 표현이며, 歷史의 표현이라고 할때 讀書는 時代와 歷史의 배경에서 오는 國民日常生活에 指針이 되는 것이다. 宗敎·哲學·藝術·道德·政治 등의 모든 精神文化는 敎養있는 國民의 힘으로써 발전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국민 각자의 讀書熱을 향상시키는 것이 捷徑인 것이고 讀書는 國民生活에 길잡이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독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매일 독서가 대부분의 生活인 사람은 물론이나 현대에 있어서는 독서가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어 전연 글자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아무책이나 되는대로 읽는 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新聞이나 오락적인 片片한 雜誌類나 巷談偶話같은 것을 읽는다고 그것을 독서한다고 하고 싶지 않다. 低俗한 유행성 出版物 같이 知的生活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思考의 훈련이나 知的生活의 향상에 아무도움이 되지않는 종류는 그것이 現代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을 소위 讀書라고는 하고 싶지 않다. 자기의 精神能力을 活動시키면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노력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흥취나 知識만 얻으려면 解讀書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전 같은 것으로도 충당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이때에도 思考力이 부족하면 그 知識의 깊은 의미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思考의 습관, 知的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讀書의 가장 큰 목표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기에 讀書의 순수한 의의는 安逸한 일이 아니다. 特히 이것은 學問하는 사람, 젊은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特殊한 目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讀書의 効果를 目前의 知識을 얻는 것보다는 모든 事物의 根本을 알아서 장래에 통하는 思考原理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迂遠한 것 같으면서도 卑近한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氾濫하는 오락적인것, 片片한 解說書같은 것으로서는 이러한 効果를 기대할 수 없고 한권 한편이라도 古典이나 原書같은 것을 힘들여 讀破함으로써 참으로 풍요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讀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目前의 知識을 얻는것보다 人生에 관한 깊고 넓은 叡智를 얻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知識이란 科學的知識이 代表하는 것처럼 부단히 새로와지고 累積하여가는 것이나 人生에 對한 智慧는 日日新하는 것이 아니요, 累積하여 커지는 것도 아니며 共同作業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人間의 個個人의 內部에 存在하는 不可分한 것이요. 자기 스스로가 思考 獲得하는 것이다. 讀書는 여기에 必要不可決한 일종의 精神的 營養物로서 그것이 人間의 思考方式을 단련하고 그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소위 「사람을 만든다」「교양이 있다」는 것들은 지식을 표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 행동 인격 등을 주로 말하는 것이다. 「讀書人」이란 人間型도 그러한 陰影을 지니는 말이다. 인류의 寶典으로 숭상을 받고 오래 전래되어 오는 서적은 별로 神奇·驚倒할 知識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論語에 「本立而道生」이라든지 「民不信不位」이라든지 지금 우연히 내 책상위에 펼쳐져 있는 「파스칼」의 「팡세」 146페이지를 보면 「세상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노는 것, 싸우는 것, 王이 될 것 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왕이 된다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 그 自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새로운 知識도 아니요 신기할 것도 없다. 그러나 迂遠한 것 같으면서도 痛切하고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십각하고 새로운 말도 아니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통한 적절하고 심오한 眞理가 느껴지는 말이다.

나는 지금 독서에 대하여 그 方法과 態度와 効用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또 한가지 우리 주위를 돌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가정, 책을 읽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어떻게될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精神的 成長이 있을 수 없고 書架없는 가정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貧困한 사람이요, 책이 퍼지지 않는 社會에 무슨 번영을 기대하며 그런 슬픈 風潮의 나라에 어떻게 幸福스런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말이다. 우리는 일찌기 가난한 속, 試鍊의 때에도 學問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한 슬기로운 겨레였던 것을 크게 자랑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 국민은 다같이 讀書하는 生活態度를 가지고 조상들의 슬기로운 예지를 이어 받아 찬란한 우리文化의 꽃을 피우도록 해야할 것이다. 讀書를 권장하는 운동은 사회를 여유있게, 윤활하게, 다채롭게 하는 길이 될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책은 만인의 벗이자 만인의 스승이기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새기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大道를 배우고 깨닫는 일이 될 것이다.